

□ 정책칼럼 □

정보제공(IP) 산업 육성 정책

최 세 하* 김꽃다음**

◆ 목 차 ◆

- | | |
|------------------|----------------------|
| 1 서 론 | 4 IP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방안 |
| 2 IP 산업의 의의 및 현황 | 5 결 론 |
| 3. 국내 IP 산업의 문제점 | |

1. 서 론

미래의 지식정보사회에서 한 나라의 국부는 전자공간에 축적된 정보의 질과 양에 의해 결정되며, 경제활동의 성숙도는 정보의 유동성 수준에 의해 판정될 것이다. 정보제공(Information Provider : IP)산업은 지식과 정보의 디지털화를 촉진하여 지식의 창출과 축적 및 활용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지식정보화 사회의 실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IP 산업은 정보통신 인프라의 구축과 함께, 정보산업발전과 사회전반의 생산양식 전환을 주도하고, 지식·정보의 유동성을 높혀줌으로써 지식정보화사회를 조기 정착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현재 국내 IP 산업은 그 산업기반이 취약하여 전반적으로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문성 부재, 개별적인 마케팅 곤란, 내수 시장의 기반 취약, 기술 개발 및 전문 인력 부족 등 악순환의 구조를 되풀이하고 있다.

현재 정보통신부는 IP 산업을 21세기 국가성장의 주도산업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1999년 3월 「정보제공산업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

였다. 이 계획은 2001년까지 매년 추진실적을 다음해 계획에 반영하는 연동계획 형식으로 3년에 걸쳐 추진될 예정이며, 정보제공산업 활성화를 위해 자금지원 확충과 콘텐츠 개발 지원, 콘텐츠의 내수시장 활성화와 수출지원, 기술 개발 및 인력 양성, 관련 제도의 개선 등 종합적인 지원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게 될 것이다.

국내 IP 산업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다수의 소규모 사업자로 구성되어 있고 점차 전문화·세분화되어 가는 추세이다. 따라서 기술 및 마케팅·기획부문에 대해 체계적으로 지원할 경우 대규모 고용창출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한 전문적이고 경쟁력 있는 IP 사업의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IP 사업은 인적자원이 풍부한 국내의 특성을 감안할 때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지닌 최적의 산업이다.

따라서 정부와 산업계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지식정보화사회의 핵심요소인 IP 산업을 활성화시킨다면 국가 경쟁력을 진작하고, 우리의 지식과 문화를 적극적으로 해외에 진출시킴으로써 올바른 위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2. IP 산업의 의의 및 현황

2.1 IP 산업의 의의

* 정희원 :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 사무관

** 정희원 : 정보통신정책실 사무관

IP 산업이란 산재해 있는 데이터를 시장의 정보수요에 맞추어 수집/분석/가공하여 제공하거나, 최신의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특정의 기능을 부가하여 이용자가 필요한 정보 및 기능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군을 말한다. 넓은 의미로는 정보제공서비스, 전자광고, 쇼핑몰, 온라인 뱅킹, 전자주문 등의 전자상거래, 전자오락, 전자교육, 통신서비스 등을 정보통신망이나 정보기기(디스켓, CD-ROM 등)를 통해 디지털화된 정보를 포함하여 다양한 정보기술을 이용한 기능을 제공하는 사업군을 의미하나, 좁은 의미로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현재 IP 산업이 정보통신의 기술 변화에 힘입어 PC 통신 분야에서 인터넷으로 확대됨에 따라 IP의 멀티미디어화가 확산·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IP 산업은 다양한 분야에서 적은 자본과 인력으로 창업과 마케팅이 가능한 지식집약형 산업으로서, 각각의 정보분야에 따라 약간의 차별화된 정보만으로도 시장경쟁에서 독보적 위치와 고가를 확보할 수 있는 구조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더욱이 초기에 투자비용이 적으며 타 산업에 비해 창업 및 퇴출의 부담이 적다. 사업실패률은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성공시 부가가치가 높은 벤처형 사업으로 성공할 수 있다. 예술적·문화적·사업적 감각과 데이터 수집 및 구성에 있어서 창의성에 기초한 기획과 전문성만 갖춘다면 IP 산업은 향후 폭발적인 인터넷 이용 인구의 확산과 지속적인 통신망 구축 및 고도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정보통신산업에서 정보콘텐츠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미국시장 기준 62.6%, 세계시장 기준 43.6%로 전망되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 정보산업이 정보콘텐츠 시장보다 상대적으로 정보기기 시장에 치중하여 온 실정을 감안할 때, 국내 정보콘텐츠 산업의 성장률은 더욱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컴퓨터, 통신, 미디어 산

업이 통합되면서 IP에 대한 다양한 수요가 새로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2 IP 산업의 현황

세계 인터넷 이용자는 현재 연평균 100% 이상의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에도 연평균 31.4% 증가하여 2002년에는 2억 8천만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인터넷의 급격한 확산은 기존의 폐쇄적 네트워크 상에서 제공되던 정보콘텐츠를 인터넷 기반으로 빠르게 전환시키고 있으며, 정보서비스 시장의 규모도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전세계 온라인 정보시장의 64.2%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의 DB 형태 정보서비스 산업의 시장 규모는 1995년 113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여 최근 1~2년 동안 16%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최근 소호(SOHO) 시장의 출현으로 인하여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에도 인터넷 및 PC통신 이용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IP가 양적으로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DB 형태의 IP 수는 연평균 37.4%, 제작기관 수는 32.2%, 이용자 수는 75.9% 등 다른 산업에 비해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내 IP 업체는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체 IP의 50% 이상이 5명 이하의 직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명 이하의 직원을 구성하고 있는 업체는 전체의 85%나 차지한다. 뿐만 아니라 92.8%의 IP가 전체 IP 자본금의 2.5%만을 점유하고 있어 자본의 편중이 매우 심각하다. 국내 온라인 DB시장은 매출액 기준으로 연평균 33.1%의 성장을 보이고 있으나 절대규모는 2,158억원 수준에 불과하며, 국내에서 유통되는 데이터베이스의 숫자는 미국의 1/3, 일본의 1/2 수준이며, 데이터베이스당 매출액은 미국의 1/100, 일본의 1/10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3. 국내 IP 산업의 문제점

국내 IP 업체는 양적인 면에서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비해 질적인 성장은 매우 미미한 편이다. 질적 성장이 둔한 가장 큰 이유는 내수 시장의 기반이 취약하다는 점에 있다. 인터넷 이용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전체 인구대비 7%에 불과하며, 이용자 계층도 일부 계층에 편중되어 있어 시장 측면에서 다양한 IP 업체가 출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용자 기반의 협소함은 IP 수익률의 저조를 유발하며 이는 IP의 콘텐츠 개발을 지연시키고 IP의 취약은 다시 이용자의 증가를 저해하는 악순환의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내수시장의 기반 취약 외에도 IP 업체의 전문성 및 개별적인 마케팅 능력의 부족이 경쟁력 있는 IP의 출현을 저해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IP가 시류에 편승한 단순 정보의 가공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수출이 가능한 전문적인 IP는 극히 한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국내 IP 업체는 그 영세성으로 인해 개별적인 마케팅이 곤란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IP 전문 전시회를 비롯한 공동 마케팅이 전무하여 양질의 IP가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한편 국내에는 IP의 원자재에 해당하는 기존 영상자료, 국가보유 기록물 등의 원시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과 정리가 미흡한 실정인데, 이는 다양한 전문 IP의 출현을 어렵게 하고 있다. 통신 환경이 인터넷의 확산 및 PC통신의 멀티미디어화로 급격히 변화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멀티미디어화를 위한 원시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은 향후 시급히 극복하여야 할 과제이다. EU의 「정보시장에 있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지침」(1989), 「INFO 2000계획」(1995), 미국의 「문서감축법」, 일본의 「국가행정기관의 데이터베이스 정비에 관한 기본 방침」 등 해외 각국이 1980년대부터 공공기관

의 정보를 민간사업자에게 제공하여 국가정보화 확산과 정보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외에도 IP 업체에 대한 초기 투자비용 지원 저조, IP 관련 기술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취약, 관련 법·제도 정비의 미흡은 IP 산업의 발전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지적된다. DB 관련 기술의 경우 한글 전문 DB 구축과 검색관련 요소기술을 제외한 대부분의 분야가 해외 기술에 의존하고 있으며, 멀티미디어 콘텐츠 관련 기술의 경우도 대부분의 저작도구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IP 전문교육기관의 부족과 체계적인 교육과정의 미흡은 전문 인력 양성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IP 산업이 지식·정보의 디지털화를 촉진시킴으로써 국가 전체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바가 큼에도 불구하고 산업분류상 기술개발분야로 분류되지 않아 세계상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비록 시장성은 크지 않을지라도 국가 경쟁력을 위해 유용한 전문 DB에 대한 지원이 미비하다는 것도 문제이다. DB에 대한 법적인 보호의 미비는 유용하고 가치있는 DB 제작 및 유지를 위한 투자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데, DB업계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하여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청된다.

4. IP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방안

국내 IP 산업이 현재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적으나, 성장 속도가 빠르고 지식기반의 고부가가치 산업인 점을 감안할 때 고급인력이 풍부한 우리나라의 21세기 전략 산업으로 육성해야 할 것이다. 이에 정보통신부는 정보의 축적을 통한 지식정보화사회의 실현을 촉진함과 동시에 정보통신 관련 직업군 및 고용 창출의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IP 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적

인 정책 방안을 마련하였다.

4.1 IP 창업 환경 조성

- 소호(SOHO) 지원실 확대 설치
- 우수 IP 사업자에 대한 고가 공동 활용 장비 지원
- 벤처캐피탈 투자 등을 통한 자금지원 확대
- IP 사업 컨설팅 POOL 구성

IMF 체제 하의 구조조정과정에서 실직자 및 퇴직자들을 중심으로 IP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기획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과 경영기법상의 취약성으로 IP 창업이 용이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서버 구입비, 라우터 구입비, 프로토콜 탑재비, 메뉴 등록비, 프로그램 개발비 등 초기 투자비용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정보콘텐츠 개발이 급속한 속도로 멀티미디어화됨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는 장비의 비용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1998년 소프트웨어진흥원에 설치한 SOHO 지원실을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하여 IP 창업자에게 사무실 및 집기 등 초기투자 비용을 최소화함으로써 손쉽게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토록 할 계획이다. 현재 SOHO 지원실에 대하여 PC, 전화기, 책상, 의자 등 사무용 집기와 20개 업체당 각 1대 내외의 공동활용 FAX, 복사기, 프린터, TI급 인터넷 네트워크 및 LAN 공동활용 서버의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자본이 영세한 우수 IP 업체에 대해서는 개발에 필요한 고가장비를 저가 또는 무료로 지원할 계획이다. 즉 공동활용 장비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고가의 콘텐츠개발장비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프로그램 개발은 물론 동영상 처리, 시제품 제작에 이르기까지 일

체의 과정을 처리할 수 있도록 작업 전과정을 지원할 것이다. 공동활용 장비지원센터는 24시간 이용 가능한 개방형 체제로 운영될 것이다.

한편 서비스업보다는 제조업을 우대하고 담보 위주의 거래에 의존하는 금융제도 및 관행이 IP 업계의 자금지원에 대한 소외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정보제공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IP 사업자에게 콘텐츠 개발 및 기술 향상과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벤처캐피탈에 의한 투자와 소프트웨어 공제조합 등을 통한 융자, 보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S/W 업체만이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으나, IP 사업자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S/W 공제조합의 규정을 개정하고, S/W 공제조합 기본제산을 확충함으로써 IP 업체도 무담보·무보증을 원칙으로 자금대여·채무보증·이행보증을 받도록 지원할 것이다.

신규 창업자의 대부분이 마케팅이나 IP 시장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여 창업 및 사업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창업에 대한 기술, 자본 유치와 경영기법 등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집단으로 구성된 IP 컨설팅 지원 풀(Pool)을 구성하여 기술자문 및 창업과 경영의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4.2 콘텐츠 개발 지원

- 우수 콘텐츠 개발 지원
- 원시정보자료 확충 및 활용지원
 - 국가차원의 전략적 디지털 콘텐츠 개발 지원
 - 영상자료 디지털화 사업
 - 정보통신 메타 DB 구축
 - 국가보유 지식정보의 디지털화 촉진
 - 공공정보의 상용화 지원

IP 사업은 단순히 정보축적 및 유통을 통한 정

보 서비스 산업의 발달을 선도할 뿐 아니라 통신망의 활용 증대로 통신 산업의 발전을 촉진한다. 즉 온라인 서비스는 일반 전화 유희시간대에 많이 이용되고 있으므로 이미 투자된 시설만으로 추가 수익의 효과를 올리고 있으며 IP가 유발한 통화는 이용시간대 분산을 통해 통신망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한국통신 통화 수익 증가에도 기여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한국통신에 1998년도 IP가 유발한 전화요금 수입이 1,370억원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통신은 IP가 유발하는 전화요금의 일부를 IP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내수 및 수출확대에 기여하여 전략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콘텐츠와 국가적으로도 필요하고 향후 이용빈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의 개발 및 디지털화에 지원토록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정부는 개발 가치가 있는 우수 콘텐츠를 대상으로 콘텐츠 개발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ISP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IP에 대해서는 기존 콘텐츠의 연계·확대 및 기능 개선, 멀티미디어화, 영문화, WEB 콘텐츠화 등에 사용될 것이고, ISP를 통하지 않는 IP 업자에 대해서는 신규 및 기존 콘텐츠 개발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원시정보자료의 확충 및 활용지원을 위하여 민간보유 정보와 정부보유 정보에 대한 균형있는 지원을 계획하였다. 기존에 실시한 정부 추진 정보화근로사업 등은 정부 보유 정보에 대한 디지털화에 중점을 두었으나 민간이 보유한 국가적 유산, 역사, 지리 등 국가 인프라의 성격을 지닌 소재에 대한 콘텐츠 개발이 요청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3년간 매년 100억원씩 한국적이면서도 세계적인 정보, 유익한 정보로서 공공성과 활용성이 뛰어난 정보에 대해서 디지털화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디지털화 비용의 100%를 지원하되 디지털화된 콘텐츠의 소유권 문제는 원시정보를 제공한 민간기관과 정보통신부간의 협약을 통해 해결하게 되며 콘텐츠의 소유권자가 원칙적으로 현행화 및 유지

관리 등 사후관리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전세계적으로 방송과 통신의 융합, 인터넷 사용의 보편화 등으로 멀티미디어 제작을 위한 디지털 데이터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건축·방송·애니메이션·게임 분야에서 3차원 표현방식이 급속히 확대됨에 따라 3차원모델의 개발과 데이터베이스화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따라서 대량의 3차원 모델을 DB화하여 지본이 영세한 국내 콘텐츠 제작업체들에게 저가로 제공함으로써 상품 개발기간을 단축하고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정부는 올해 88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게임, 애니메이션, 교육용 콘텐츠, SF 영화 등의 제작에 활용될 3차원 모델(8000건 이상)등을 개발하고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의 서버에 개발된 디지털데이터의 체계적 분류, 저장을 통하여 산업체에게 저가로 임대하는 디지털뱅크를 구축·운영하도록 하였다.

정부는 인터넷상에 산재되어 있는 정보통신분야의 전문 정보를 효과적으로 안내하기 위하여, 정보통신 메타데이터로 구성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는데, 정보통신분야의 전문 정보를 분석 가공할 수 있는 전문 지식을 갖춘 고급 인력의 고용 창출 효과 및 정보 획득과 활용의 편의성을 극대화할 것으로 예견된다.

최대의 정보 보유 기관인 정부 및 공공 부문의 정보 활용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 보유 정보의 활용은 1) 소관 부처에 의한, 혹은 정보화 지원사업을 통한 자체적인 디지털화 지원(국가보유 지식정보의 디지털화 촉진)과 ii) 민간의 정부 보유 정보의 활용 활성화 방안(공공정보의 상용화 지원)을 통해 수행될 것이다. 국가보유 지식정보의 디지털화 촉진 계획은 이용빈도가 높은 정보, 신속한 디지털화의 필요성이 높은 정보, 최신 자료에 우선적으로 지원될 것이고, 학술·문헌, 과학기술·산업, 일반분야순으로 구축될 것이다. 이미 구축된 지식정보DB는 통합서비스가 가능하

도록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여 연계될 것이며, 향후 구축될 지식정보 DB는 연계가 가능하도록 표준화된 기반 위에서 구축될 것이다. 지식정보 DB 구축 및 연계에 대한 명확한 역할 분담을 통해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체계적인 국가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 그 외에도 영문화비용을 추가로 확보하여 해외 유명 DB 유통 회사를 통한 우리나라 지식정보의 국제적 유통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정보의 상용화 지원 계획」은 공공부문이 보유한 정보 중 민간이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조사하여 목록 DB로 구축함으로써 민간이 공공정보자료의 소재를 파악하여 정보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이다. 이미 1998년도에 16개 중앙행정기관의 225종의 자료를 조사한 바 있고, 향후 조사대상을 중앙행정기관에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로 단계적으로 확대·시행할 계획이다.

4.3 국내 및 해외 시장 개척 지원

- 정보화 마인드 확산 및 망 고도화 추진
- 우수 IP 선정 및 홍보사업
- PC 통신회사와의 IP 공동 마케팅 지원
- IP·S/W 전문 사이버마켓을 통한 IP시장 활성화 촉진
- 사이버 2002년 월드컵 페스티벌 개최
- IP 업체 해외진출 지원사업

IP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수 시장의 저변 확대가 관건이 된다. 정부는 100만 「ID 갖기 운동」과 「전국민 홈페이지 갖기 운동」 추진을 통해 정보이용자층 확대를 추진하고, 국민 정보화교육 기본계획의 종합적인 실천계획을 수립·추진하는 등 국민들의 컴퓨터교육을 강화한다. 또한 이용자의 통신요금 부담을 줄이고 인터

넷의 이용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기간전송망 고도화, 가입자망의 고속화 등 인터넷 기반 확충에 상당한 예산을 확보, 수행할 것이다. 「정보도 대가를 지불하여야 한다」는 정보화 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정부주도의 캠페인을 전개할 것이다.

국내 IP는 업체의 영세성으로 인해 체계적인 광고 및 마케팅 능력이 부족하여 우수한 제품이 사장되고 있으며, 더욱이 국제적인 마케팅을 통한 IP 수출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IP 업체의 독자적인 홍보 및 마케팅이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공동 마케팅 협력체제 구축을 모색하였다. 우수IP 선정 및 홍보사업, PC통신회사와의 공동 마케팅 지원, IP·S/W전문 사이버마켓을 통한 IP 시장 활성화 촉진, 사이버 2002년 월드컵 페스티벌 개최, IP 업체 해외진출 지원 사업 계획이 수립되어 추진 중에 있다.

우수 IP 선정 및 홍보 사업은 분기별로 다양한 분야의 우수 IP를 선정하여, 우수 IP에 대해서는 정보화촉진기금 지원시 가점 부여, 채무보증 우대 지원, 유망중소기업 선정시 가점 부여, 병역특례 업체 추천시 가점 부여,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 제공 등 각종 혜택을 지원함으로써 IP 업체의 투자 의욕을 고취시킬 계획이다.

PC통신회사와의 공동마케팅 지원 사업은 PC통신회사와 IP간의 정기 협의체를 구성토록 함으로써, 공동마케팅 협력체제 구축, 마케팅 정보 공유를 통한 IP 사업의 발전 방향 제시, 각 PC통신 및 인터넷 서비스에 IP 정보 홍보를 통한 마케팅 강화를 수행하게 한다. 또한 각종 전시행사에 공동 IP 전시관 구성을 지원하며, PC통신회사의 광고시 IP 안내를 일부 할애하거나 공동 광고 컨소시엄 구성을 지원하게 된다.

전세계적으로 전자상거래, 전자유통망을 통한 비즈니스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미래 경제분야의 중심축이 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IP의 사이버마켓 참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현재 한국 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S/W 사이버마켓 및 3D 콘텐츠마켓을 확대 구축하여 영세한 중소기업 및 S/W업체에게 유통시스템을 지원하게 된다. IP 및 S/W 전문 사이버마켓은 쇼핑몰 사이트, 수출거래 중개 사이트, 3D 데모 사이트, 유료콘텐츠 사이트, 사이버마켓 기능 제고를 위한 기반시스템으로 구성된다. 향후 해외 유명 쇼핑몰과의 연계 운영, 국내의 유명사이트와의 전략적 제휴 등 본격 홍보·마케팅 추진을 통하여 신규 수요 창출을 모색할 것이다.

사이버 2002년 월드컵 페스티벌 개최는 한일 공동의 2002년 월드컵 개최와 연계하여 IP사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촉진하려는 것이다. 인터넷을 통한 한·일 디지털 콘텐츠 페스티벌, 한·일 IP 산업 포럼 및 컨퍼런스를 일본측과 협의하여 개최할 계획이다.

국내 IP 업계의 영세성으로 해외 유통채널과 연계체제가 구축되어 있지 않고, 제품·시장별 수요자의 요구 파악 능력이 취약하며, 해외 마케팅 인력, 전문회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IP업체 해외 진출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IP 수출업체 집중 지원 체계 구축, 수출유망업체들의 해외 전시회 참여 및 해외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고, 유럽·미국 등 수출유망시장에 해외 시장개척단을 파견하여 현지업체·벤처캐피탈회사·법률회사와의 교류를 증진하여 중장기적인 수출 교두보를 마련할 계획이다.

4.4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 개발 및 인력 양성

- IP 관련 기술 개발
-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 우수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체제 구축
 - 교육여건 조성
 - 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
 - 인력 활용지원체제 구축

IP 관련 기술의 경우 한글 전문 DB 구축과 검색관련 요소기술을 제외한 대부분의 분야를 해외 기술에 의존하기 때문에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IP 관련 기술 개발이 시급하다. 특히 문자 위주의 정보 서비스에서 인터넷 기반의 멀티미디어 정보 서비스 형태로 전환됨에 따라 멀티미디어 정보의 제작, 관리, 유통을 위한 공통 요소기술 개발이 요청되고 있다. 정부는 한국전자통신연구소를 주관기관으로 하여 매해 1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확보하여 DB 구축 및 서비스 공통 요소 기술 개발,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및 관리 도구 기술 개발, 공동 애로기술 발굴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국내 데이터베이스 구축 유통시 표준화 활동이 부족하여 데이터베이스간 데이터의 상호 교환 및 공동 활용, 이용자의 검색 편의성 등에서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 DB 관련 표준화를 크게 DB일반분야, 데이터분야, 데이터베이스 분야로 나누어 데이터베이스 전문기관(한국전자통신연구소와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을 중심으로 국제 표준 수용 및 신규 표준 과제 연구를 지속적으로 개발, 강화토록 할 것이다.

IP 산업 관련 기술은 급속히 발전하고 시장도 커지고 있는 반면 기존의 IP 교육은 여러 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내실있는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IP 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및 교과목의 구성이 전무하여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IP 분야 전문가에 대한 파악 및 활용도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표준 교과과정 및 교재제작, 전문강사 인력 풀(Pool) 구성 및 운영, 전문 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 IP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이버대학 과정 설립 추진, 특성화 고교 지원 등을 계획·수행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IP 관련 우수 인력을 양성하고 이들이 각 분야에서 지속적

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문자격 인증제도 운영, 구인·구직 DB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전문인력 해외 연수 및 병역 특례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것이다.

4.5 IP 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 정비

- IP 산업에의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 개선
- 고품질 콘텐츠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DB 보호 법체제 마련
- IP 업체 단체의 정비·충실화
- 불건전 정보유통에 대한 규제 강화

IP 사업은 초기에 집중 투자가 요구되고, 투자된 자금의 회수기간이 길며, 투자수익율이 저조하며, 사업실패의 위험성이 타 산업에 비해 높은 편이다. 따라서 IP 사업을 촉진하고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지원 조치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IP 사업이 기술개발로 분류되지 않아 각종 세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IP 사업의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IP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세제 개선 방안을 마련,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조세감면규제법」에 ‘데이터베이스 구축 준비금의 손금산입’을 도입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DB 업체를 서적, 출판업 등 제조업과 동일한 표준소득률(현재 서적 출판업 등 문화사업은 소득률이 40%, DB업은 39.6~43.5%)을 적용하도록 추진할 것이다.

한편 데이터베이스의 지속적인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하다. 정보자원의 디지털화에 많은 비용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디지털화된 데이터베이스는 불법 복제가 용이하므로 이를 적절히 제재하지 못할 경우 내실있고 유용한 데이터베이스 제작에 대한 투자 의욕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이

다. 현재 창작성을 요건으로 하는 저작권법상의 데이터베이스 보호에 미흡한 점이 많으므로 국제적인 추세를 견지하면서 데이터베이스 제작에 대한 투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별도 보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최근 PC통신, 인터넷에서 성인정보 등 불건전 정보의 유통이 급증하여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불건전정보 유통방지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나, 모니터링 요원 부족, 정보통신사업자의 자율규제체제 미흡, 인터넷을 통한 해외 불건전 정보의 유통에 대한 사전 방지대책 미비로 원활하게 규제되고 있지 못하다. 정부는 DB 등급제 실시, 자율모니터링 실시, 국내 DB 신고제 실시 등을 통해 불건전 정보의 유통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이다.

현재 IP 관련 단체들이 산발적으로 다수 구성됨으로써 IP 업계 전체의 대표성이 결여되어 현안 문제 해결과 업계 전체의 의견 수렴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한국IP협회, 한국인포삼협회, 한국전회정보협회 등 기타 관련단체의 자발적이고 전향적인 해체·통합을 유도하여 IP 관련 사업자 단체 통합조직을 구성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5. 결 론

IP 산업은 정보산업발전과 사회전반의 생산양식 전환을 주도하고, 지식·정보의 유동성을 높여줌으로써 지식정보화사회의 조기 정착을 가져오는 산업이다. 그러나 현재 국내 IP 업계는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문성 부족, 개별적인 마케팅 곤란, 내수시장의 기반 취약, 기술 개발 및 전문 인력 부족 등 악순환의 구조를 반복하고 있다.

따라서 비록 국내 IP 산업이 현재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 획득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지만 향후 지식정보화사회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IP 산

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보통신부에서는 IP 산업 육성정책을 마련·수행함으로써 향후 IP 산업을 우리나라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동시에 지식정보화 사회 건설의 초석으로 삼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계획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책을 입안한 정부 뿐 아니라 관련 산업계, 학계, 기타 기관 모두가 일치단결하여 IP 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최 세 하

- 1975년 체신부 서울전파감시국 기술과
- 1985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 1989년 연세대학교 산업대학원 전자공학과 졸업(공학석사)

1999년 청주대학교 대학원 전자공학과 졸업예정 (공학박사)

- 1971년 체신부 서울전파감시국 기술과
 - 1972년 체신부 전파연구소 표준과
 - 1978년 체신부 전파관리국 주파수과
 - 1991년 체신부 정보통신국 정보통신기술과
 - 1994년-현재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국 소프트웨어진흥과 사무관
- 주관심분야 : 정보통신 표준화 및 기술기준



김 꽃마음

- 1994년 고려대 행정학과 졸업
- 1995년 제39회 행정고시
- 1999년-현재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국 소프트웨어 진흥과